

통신분야의

Y2K 문제해결 현황

이 진 영 /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전산사무관

2000년 1월 1일 0시 1분!

천년이 바뀌어도 여전히 속삭이고 싶은 연인들이 새벽에도 잠못 이루고 거는 사랑의 전화. 집 떠난 아들 걱정에 참고 참다 이동전화 다이얼을 누르는 어머니의 모정. 수출전선에서 밤을 낮으로 알고 일하는 모 기업의 국제전화. 이 모든 통화들이 2000년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시스템의 Y2K 문제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통신분야의 Y2K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개요

통신시설은 국가기간인프라로서 2000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통신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행정 등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전사적 의지를 결집,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Y2K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통신분야 Y2K 문제 발생 가능성

통신시스템

통신시스템에는 교환시설, 전송시설, 선로시설 등이 있으며, Y2K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통신두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분야의 2000년 문제가 핵심기능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전화소통중단 등)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기능인 과금, 통계, 통신망제어 등에 오작동,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에는 고객관리, 요금계산, 마케팅시스템 등이 있으며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도를 이용한 요금 계산시 오류발생, 고객DB및 요금자료 오류, 부가서비스 제공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분야Y2K문제해결추진현황

Y2K문제해결 추진상황

1997년 5월부터 통신사업자별로 Y2K문제 해결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사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998년 3월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통신분야를 중점 관리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문제해결을 적극 독려하여 왔다.

통신분야 Y2K 문제해결의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1998년 4월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4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신분야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Y2K문제해결 추진상황을 매월 관리하고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도 실시하여 왔다.

또한, 1999년 2월부터는 한국통신, 데이콤, 5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7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통신분야Y2K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힘쓰고 있다.

Y2K문제해결 진척상황

1999년 6월말 현재 통신분야 Y2K문제해결 평균 진척도는 94%로 1999년 8월말까지는 통신분야 Y2K문제가 해결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통신은 1999년 7월 중 문제해결 완료 후 자기인증을 선언할 예정이며, SK텔레콤, 신세기통신은 1999년 7월말, 데이콤은 1999년 8월

[표1]통신분야 Y2K 문제해결 진척도

구분	정보시스템	통신시스템	평균
진척도	92.9%	94.6%	평94.0%

자기인증을 선언할 예정이며, SK텔레콤, 신세기통신은 1999년 7월말, 데이콤은 1999년 8월말까지 문제를 해결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사업자는 이미 문제해결 완료 후 Y2K 인증을 획득하였다.

Y2K 연계모의 시험 실시 현황

1999년 5월 한국통신, 데이콤, 5개 이동통신사업자 등 7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Y2K문제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Y2K 연계모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 Y2K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표2] 통신분야 Y2K 연계모의시험 통화 현황

시험대상 업무	통화시험 내역	시험날짜 (ITU 권고 RISK DATE 기준)	시험결과
호처리 및 파금시험	유선 ↔ 유선	1999/09/09, 2001/02/01	정상
	유선 ↔ 무선	2000/02/29, 2000/03/01	
	무선 ↔ 무선	2001/01/01, 2004/02/29	

특히 각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통신분야 Y2K연계모의시험시연회를 실시하여 통신

[표3] 통신분야 Y2K 연계모의시험 시연회 장면



시연회 행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들은 직접 2000년 1월 1일 상황에서의 유선전화는 물론 무선 전화와의 통화를 체험하였다.

분야 Y2K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1999년 5~6월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일정에 따른 싱가포르(Singtel), 일본(KDD)과의 국제연동시험을 실시한 결과 Y2K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통화가 되었다.

Y2K 문제해결 홍보 및 국제협력

정보통신부 및 통신사업자별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Y2K 문제해결 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통신서비스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 통신사업자와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제9차 한일통신협력위원회에서 통신분야 Y2K문제 협력 강화를 협의하였다.

이런 Y2K 문제해결 홍보 및 국제협력강화로 1999년 6월, 제12차 G2K(Global 2000 Coordination Group) 정기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통신분야 Y2K 대응 상황이 Green(최우수) 등급

으로 상향 평가되기도 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1999년 8월말까지 Y2K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Y2K 문제해결 활동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Y2K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문제해결, 정보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인증 및 자기인증으로 Y2K문제 대응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Y2K 비상계획의 지속적인 보완과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1999년 12월~2000년 1월 통신분야 Y2K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Y2K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완벽을 기할 것이다. ◆

사고

격월간 [정보화사회]가 7·8월호부터 '회원사 탐방'코너를 신설하여 회원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이 란을 통해 [정보화사회]는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의 경영 현장을 집중 취재, 그들의 땀과 노력이 거둔 결실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회원사 탐방'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사는 [정보화사회] 편집실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참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화사회]'회원사 동정'란에 자사 소식을 게재하기 원하시는 회원사는 저희 편집실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시오. 정성을 다해 실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580-0587/팩스 580-0599/E-mail 주소: jhchoi@kait.or.kr